

고용 동향도 南北 미래도... 文 대통령 입에 '시선집중'

文 대통령, 오늘 신년기자회견

약속된 질의응답 없이 '직접진행' '체감 경제성과' 의지 피력할 듯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인 2019년 새해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굵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 현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외교 현안을 살펴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베이징에서 4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처럼 다수의 국내외 현안들이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실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8일 다수 현안을 질의하는 취재진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질의로 준비하면 어떤가"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청와대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선지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의 시선은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어떤 메시지를 꺼내느냐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열중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9일 일정이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의 9일 '공개일정'은 없다.

여권 관계자는 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9일 공개일정이 없는 것은 비공개적으로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한다는 의미 아니겠나"라고 했다.

더욱이 오는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해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약속된 질의응답'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직접 '진행'을 담당하게 됐고, 자연스러운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방식이 도입됐다. 타운홀 미팅은 누구든지 참가해 자기의사를 밝히는 회의방식을 뜻한다.

즉,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유롭게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때 '경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새해벽두부터 연속 경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재 '메이커스페이스(혁신 창업기업 현장)' 및 서울 성동구 소재 '수제화 제작 현장'을 찾았다. 지난 7일에는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중순에는 대기업과 중견

기업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계획하고도 있다.

이러한 행보를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때 '국민이 체감 가능한 경제성과' 의지를 피력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은 평창동계올림픽 및 남북관계 등 외교 현안에 집중했다면 올해 기자회견은 경제 현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새해 첫 국무회의 때 "우리 정부 2기 경제팀(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국민의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숨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다. 그들 목소리를 '피부의 하소연'인양 경청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우승준기자 dn114@metroseoul.co.kr

신지연·복기왕 등 신임 비서관 6명 임명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

2020 총선 준비 참모진 대체 위함 의전·고용노동 비서관 추후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관을 인선한 다음날인 9일 신임 비서관 6명을 임명했다.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하는 참모진을 대체하기 위함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신임 비서관 6명을 임명했다"며 "제2부속비서관에 신지연 전 해외언론비서관, 정무비서관에 복기왕 전 아산시장,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춘추관장에 유송화 전 제2부속비서관, 해외언론비서관에 김애경 전 삼일회계법인 변호사, 문화비서관에 양현미 전 한국문화예술포럼진흥원장을 임명했다"고 알렸다.

이번에 임명된 비서관 6명 가운데 신지

연 제2부속비서관은 1967년 부산 출신으로 삼성중공업 법무실 수석변호사를 역임했다.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1968년 충남 아산 출신으로 제17대 국회의원 및 아산시장을 지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1962년 부산 출신으로 한겨레신문에서 선임기자 및 정치부장을 지냈다.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은 1965년 전남 출신으로 BC카드 컴플라이언스 실장을 지냈다.

유송화 춘추관장은 1968년 전남 출신으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및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은 1964년 서울 출신으로 한국문화예술포럼진흥원장 및 서울시 문화기획관을 지냈다.

한편 공식으로 남겨진 의전비서관직과 고용노동비서관직 등 인사는 추후에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승준 기자



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지작사 대강당에서 열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김운용 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전방 우리가 지킨다”

1·3군 통합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부대·병력 줄이고 '스마트 軍' 전환

제1·3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의 창설식이 9일 거행됐다. 최전방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각각 지켜온 제1·3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작사령부의 창설로 군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의 서막이 열린 셈이다.

지작사의 창설은 병력 감소에 따른 효율적 군 운용을 위해 통합된 전방지역 작전사령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1998년 국방기본정책서에 지작사 창설을 반영해 추진되어 왔다.

이날 육군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기도 용인시 지작사 대강당에서 열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전인 8일, 초대 사령관인 김운용 대장에게 부대기를 직접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운용 사령관이 수여받은 부대기의 부대표지는 제1야전군사령부와 동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 축하를 통해 "지작사 창설은 국방개혁2.0의 첫번째 성과로, 성공적인 창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 지작사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전했다.

창설식을 주관한 정 장관은 "지상작전사령부가 앞으로 지상에서의 모든 연합·합동작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넓은 작전지역을 빈틈없이 지키면서 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창설식에 앞서 지휘통제실을 방문, 지휘통제체계 구축상태와 현행작전 등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4일 '지상작전사령부'가 공포된 이후 지작사는 창설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치고 앞서 지난 1일 창설했다.

지작사는 참모부와 군수지원사령부, 화력여단, 지상정보단 등 직할부대, 지역군단 및 기동군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한·미 연합지상군성군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때문에 육군의 지휘구조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되며, 지작사는 차후 전시 작전권 전환과 연계해 한·미 연합자산의 지휘통제가 가능한 위치를 갖추게 됐다.

육군은 "지작사는 지상영역에서 안전성이 보장된 연합·합동작전 수행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며 "지작사 창설을 계기로 부대의 병력 및 부대 수가 일부 줄어들지만 군단 및 사단의 전력은 오히려 보강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통신체계가 구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걸음마 단계인 드론보트와 미흡한 C4I 체계로는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주도적으로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초대 사령관 김운용 대장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지상작전사령부는 연합·합동작전을 수행하는 지상군 최상위 사령부로서 미래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국방의 소임완수와 선진 병영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을 강조했다.

김운용 대장은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2군단장 ▲제3야전군사령관을 역임한 작전 및 교육훈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n@

박성택 “혁신·협업은 위기극복·도약 위한 해결책”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인 신년인사회

이낙연 총리

“국내외 동향에 선제적 대처 정책방향 지키되 성과 낼 것”

중소기업인들이 '2019년 신년인사회'에서 혁신과 협업을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스마트공장을 통한 혁신과 협동조합을 통한 협업은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 "자동화된 기계의 딥러닝을 통한 차원 높은 생산성과 제로에 가까운 불량률을 보여주는 똑똑한 공장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성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건배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홍준하 장관. /연합뉴스

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처음으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함께했다.

또 국회에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자리했다.

경제계에선 주최측인 중소기업중앙회 외에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은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총리는 "올해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많다"면서 "정부는 국내외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정책의 방향은 지키되 그 이행은 유연하게 해가며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